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보고서

2026. 9.



경 산 상 공 회 의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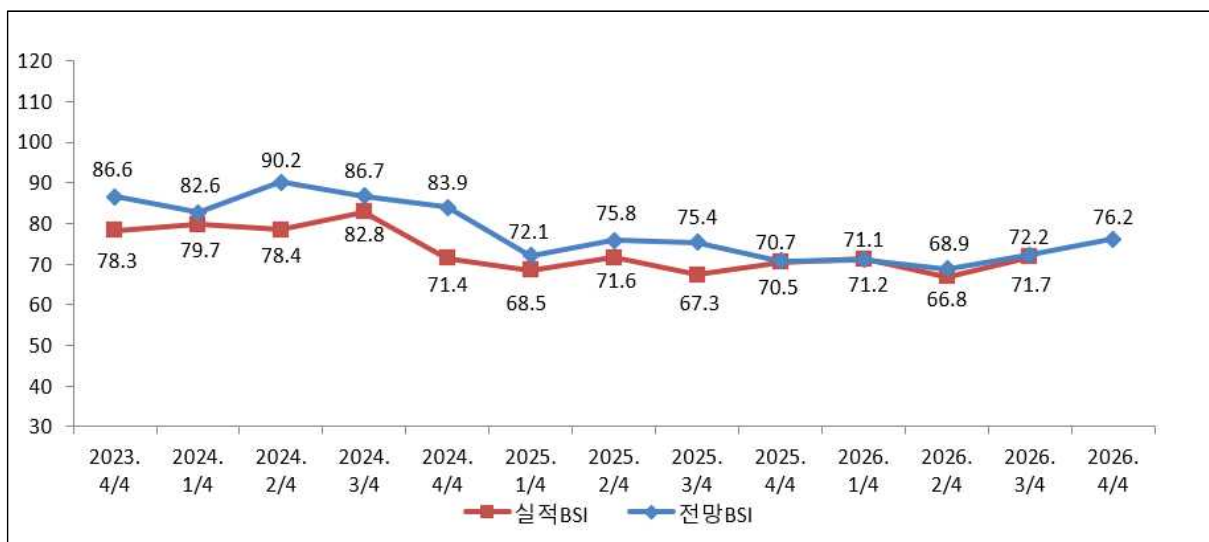
I. 경기전망(BSI)

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실사지수(BSI)는 전 분기(72.2)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76.2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내수 여건의 일부 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재료·부품 등의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은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와 완성차업체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수주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동화 전환에 따른 사업 전환 부담과 미국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어 지역 제조기업의 체감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 3/4분기 BSI 실적치는 지난 분기 66.8 대비 4.9포인트 상승한 71.7로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산 · 청도지역 경기전망 B.S.I 추이>



구분 BSI	23년	24년				25년				26년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 BSI	86.6	82.6	90.2	86.7	83.9	72.1	75.8	75.4	70.7	71.1	68.9	72.2	76.2
실적 BSI	78.3	79.7	78.4	82.8	71.4	68.5	71.6	67.3	70.5	71.2	66.8	71.7	

◆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주요 업종별 4/4분기 전망 BSI는 자동차부품 업종이 85.8, 기계·금속 80.5, 섬유 68.5, 기타제조 업종이 63.3으로 나타나 전 분기에 이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부문별 4/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85.4, 영업이익은 83.3, 설비투자가 85.7, 자금사정이 81.7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진했다.

<주요 업종별 · 부문별 B.S.I>

분 기		2026년 3/4분기 실적	2026년 4/4분기 전망
업 종 별	전 제 조 업	71.7	76.2
	자 동 차 부 품	73.6	85.8
	기 계 · 금 속	71.5	80.5
	섬 유	61.4	68.5
	기 타 제 조	68.4	63.3
부 문 별	매 출 액	73.3	85.4
	영 업 이 익	65.6	83.3
	설 비 투 자	88.1	85.7
	자 금 사 정	71.7	81.7

Ⅱ.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

- ① 귀사의 올해 실적(영업이익)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백분율
크게 미달	12.5%
일부 미달(10% 이내)	45.8%
목표 수준 달성	33.4%
일부 초과 달성(10% 이내)	8.3%
크게 초과 달성	0.0%
합 계	100%

☞ 조사참여 기업의 과반 이상(58.3%)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긍정 요인은 무엇입니까?

	백분율
판매·수주 여건 개선	51.4%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	0.0%
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17.2%
환율 안정	5.7%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	11.4%
통상환경 개선(공급망 안정, 관세 인하 등)	5.7%
제도(규제·인허가) 개선	0.0%
기 타	8.6%
합 계	100%

☞ 조사참여 기업의 과반수(51.4%)가 ‘판매·수주 여건 개선’이 가장 큰 긍정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백분율
판매·수주 여건 악화	17.6%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	37.8%
환율 변동성	9.5%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	21.6%
통상환경 악화(공급망 불안, 관세 등)	5.4%
규제·인허가 등 제도	1.3%
기 타	6.8%
합 계	100%

👉 조사참여 기업의 37.8%가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 21.6%가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 17.6%가 ‘판매·수주 여건 악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④ 귀사가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은 얼마입니까? (*참고 : 원·달러 환율 1397.7원, `26년 8월 19일 기준)

조사참여 기업 적정 환율 수준 평균치	1328.3원
----------------------	---------

⑤ 귀사의 수입 의존도(연간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부품 등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는 어느 정도입니까?

	백분율
없음 (전량 국내 조달)	24.4%
10% 미만	15.6%
10% 이상 20% 미만	2.2%
20% 이상 30% 미만	13.3%
30% 이상 40% 미만	17.7%
40% 이상 50% 미만	8.9%
50% 이상	17.9%
합 계	100%

👉 조사참여 기업의 44.5%가 연간 매출액의 수입 의존도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